# 길 열풍에 혈세로 '단체장 치적쌓기'

### 자치단체 보행로·자전거 도로 마구잡이 조성 왜?

## 국비 지원사업 이라면 무조건 받아쓰고 보자

## 온전한 길 파헤쳐 우레탄 깔고 나무데크 설치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이 보행로나 자전거도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웰빙 열풍속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이들 시설 설치를 반기고 있어 단체장의 치적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이 된다.

그러나 최근 이들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기존 길을 다듬는 수준이 아니라 LED등과 나무데크 설치로 고급화되고 있으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제로 이용자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그 성과가 바로 드러나는 시설 설치 위주의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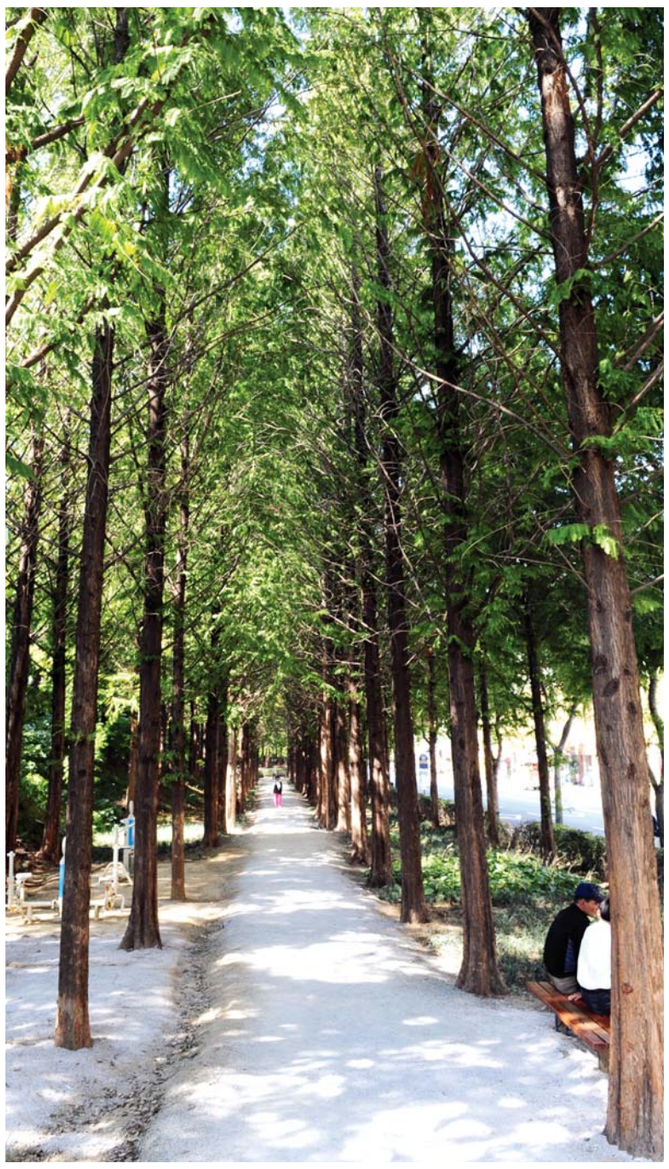
◇1m에 수백만원 들인 결과는?=공원 빈 공간이나 보행로 광장 등에 어김없이 설치되는 것이 체육시설물, 나무데크, 우레탄 바닥 등이다. 보행로와 산책로 조성에 필수시설이 된 이들 시설물은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중복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산책로, 보행로 등이 곳곳에 조성되면서 이용자는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로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성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신규 택지 조성에 따라 과거 농업용 저수지가 불필요하게 되면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모두 천편일률적인 시설물과 디자인이 도입되고 있다.

◇수요 및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해야=이들 사업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수요조사나 사업 타당성은 아예 사전에 검토대상이 되지 못한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 지자체들이 '국비는 우선 받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무조건 하고 틈이 생기면 슬며시 숙원사업까지 포함해서 추진한다"며 "일단 조성해두면 실적도 남고 나중에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면서 준공 이후 이용자가 없이 방치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또 인공물을 설치하는 데만 치중하면서 자연경관을 오히려 훼손하거나 해당 장소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비슷한 디자인의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어느 산책로나 저수지를 가든 똑같은 색채와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다"며 "예산 쓰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장기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8억원을 투입해 나무데크를 깔 예정인 북구 문흥동 호남고속도로 인근 보행로. 현재 걷기에 불편함이 없는 자갈길로 돼 있어 이곳에 나무데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김치축제 내년엔 美서도 열린다

### 첫 해외 개최

광주김치문화축제가 내년 9월께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세계김치문화축제위원회는 19일,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김치문화축제와 별도로 9월께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김치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제위원회가 외국에서 김치축제를 여는 것은 처음으로, 국내 젊은 요리사들이 광주 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400일 동안 대장정에 나서는 '세계로 떠나는 김치버스'가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날에 맞춰 축제를 열기로 했다.

경희대학교 조리학과 선후배인 류시형(28), 김승민(28), 조석범(24)씨 등 김치요리사 3명은 '세계로 떠나는 김치버스'를 타고 전 세계 36개국 80개 도시, 5만2000km를 400여일간 횡단하며 퓨전 김치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은 버스 외부에 세계김치문화축제 로고를 부착하고 김치축제와 광주 김치 '감칠배기'를 홍보하는 전단지 5만장을 싣고 전 세계 곳곳을 누비게 된다. 이들은 이달말 배를 이용해 첫 행선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출발한다.

세계김치문화축제위원회 김성훈 위원장은 "세계로 떠나는 김치 버스가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때에 맞춰 김치축제를 열면 광주 김치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한인회 워싱턴DC 지회장이 미 국무성 안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어서 광주 김치가 국무성 직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세계김치문화축제는 지난 15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광주 중외 공원 일대에서 'Say Kimchi~ 천년의 맛, 세계인과 함께'란 주제로 열리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영암 F1 성과와 과제

### 下 문제는 적자 탈피

# 정부지원·기업후원이 성공열쇠

### 89만원 티켓 걸맞는 서비스 업그레이드

16일 폐막한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는 16만명의 관람객 중 실제 티켓 구매자가 90%에 이르면서 모터스포츠 불모지인 국내에서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수두룩하다는 점도 재차 확인됐다.

◇'고가' 티켓에 걸맞는 서비스 '업그레이드'절실=F1 대회 결승전이 끝난 16일부터 F1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관람객들이 올린 불만 글이 쏟아지고 있다. 불친절하고 운영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안내에 대한 불만부터 셔틀·내부 순환버스와 주차권에 대한 홍보 부족, 방송사 사정에 맞춘 문화행사와 부족한 부대시설 등 최고 89만원에 달하는 티켓을 구매한 관람객들을 배려한 서비스는 커녕,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 대회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었다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다.

◇정부·기업 인식 전환해야=올 F1 대회에 메인스폰서로 참여한 2개 기업은 포스코와 SK ZIC. 100만달러를 지급하고 대회 메인스폰서십 참여를 확정했다.

하지만 국제 F1운영법인인 FOM은 메인스폰서십에 참여하려면 200만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F1에 대한 인식이 낮은 여건을 고려해 100만 달러로 낮춘 것으로, F1 대회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 차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다. F1 대회가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구로 활용되는데도 불구, 코리아 대회에서는 타이틀 스폰서도, 공식 후원사도 전혀 없었다.

정부의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 F1을 국격을 높이고 국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이벤트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자 구조도 탈피해야 한다. 당장, 올해 대회도 600억이 넘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개최권료와 중계권료에 대한 협상을 서두르고 치열한 마케팅과 홍보를 통한 수익 구조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F1 2011년 손익 추산 (단위:원)

| | |
|---|---|
| 수익 | |
| 입장권 수익 | 180억 |
| 스폰서수입 등 | 90억 |
| 합계 | 270억 |
| 비용 | |
| 대회 개최권료 | 480억 |
| TV중계권료 | 160억 |
| 대회운영비 | 300억 |
| 합계 | 940억 |
| | -670억(추정) |

# "송정역세권 관광·의료·쇼핑 연계 개발을"

### KTX개통 지역발전전략

2014년 말로 예정된 호남선KTX 개통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선 송정역세권의 관광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등 특성화된 역세권을 개발하고 관광과 유통, 의료, 쇼핑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광주발전연구원 주관으로 'KTX개통 대비 지역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분야별 통합 전문가좌담회'를 개최하고 호남선TTX개통을 지역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정하욱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KTX개통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광주역과 아시아문화전당 간 활동연계축의 기능을 강화하고, 광주역과 송정역 주변을 특성화된 역세권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유통·쇼핑분야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형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택 전남대 의학과 교수는 중증질환의 경우 서울지역 병원 선택비율이 80%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 광주지역 개인 의료기관보다는 종합병원의 생존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차라리 차력사를 뽑을일이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